

2024 산별 13대 집행부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고대의료원지부 정기대의원회

2024년 고대의료원지부를 책임질 정기대의원회가 지난 3월 20일(수)-21일(목) 양일간에 걸쳐 남산 서울시립유스호텔에서 진행됐다.

치열한 토론과 교육으로

고대의료원지부를 책임진다!

대의원회 일정은 다양한 교육과 간부대의원 단결의 시간으로 준비됐다.

첫 번째 교육으로 김안희 교육부장이 ‘고대의료원지부 소개 및 단체협약’이란 주제로 노동조합을 소개했다. 두 번째 교육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방기원 前보건의료노조 교육위원장이 노동조합의 역사와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간부대의원 올해의 목표 정해

부서 하루교육 참여율을 높이겠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다리가 되겠다.

교육이 끝난 뒤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으며 ‘대의원으로서 목표’를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의원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조합원들이 알기 어렵다며 중간에서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연말 평가 대의원회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송은옥 지부장, 3년간 활동을 인정받는 사업 계획할 것

본회의 시작 전 송은옥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가 났다. 올해 및 3년 운영계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면한 사태로 인해 기초를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민하고 병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사업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의 수장인 안수경 본부장이 직접 회의장을 찾아와 격려사를 건넸다.

2023년 평가 및 2024년 활동계획 확정

본회의 보고사항 중 보건의료노조 및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 보고는 서울지역본부 이준태 사무국장이 직접 2024년 당면한 노동정세와 산별현장교섭 흐름을 발제했다. 안건은 3가지를 논의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고대의료원지부 정기대의원회 논의안건 및 결과

■ 보고사항 : 활동보고, 연대단위(전태일센터) 지원,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차 소송, 24년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

■ 논의안건

1. 2023년 총괄사업 및 각부 사업평가,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건 -> 이견없이 승인 함.

2. 2024 총괄사업계획(안) 및 각 부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건 -> 이견없이 승인 함.

3. 2024년 임원 선출 건

· 사무장 선거 : 후보 - 이용은 총무부장 -> 당선

· 회계감사 선거 : 후보 - 김종욱(안암 기계실), 조항직(안암 보호요원실), 박상필(구로 보호요원실) -> 당선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이 모였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빈자리와 교수 사직 철회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부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병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나 이번 기자회견은 고대의료원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 노동조합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과 서울아산병원 이경민 지부장의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현장발언으로 송은옥 지부장이 현장 간호사 피해사례를, 서울성모병원 김선화 지부장이 환자 국민 피해사례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회장이 환자단체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공의 즉각복귀 및 교수 집단사표 즉각철회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불 ▲환자와 병원노동자,



↑ 송은옥 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우리의 요구가 담긴 기자회견문이다.

전공의 즉각 복귀, 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사용자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조속히 시작하라!

1.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수들은 집단사표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집단이익을 위한 투쟁을 하더라도 환자진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명분 없는 집단진료거부를 중단하고 환자진료와 병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하고 교수들은 집단사표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면 병원노동자는 물론 환자와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전공의 대표와 의대교수대책위와 정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2. 병원장(의료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병원 사용자는 의사선배가 아니라 50여 개 직종이 일하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공의 미복귀와 교수들의 집단사표에 대해 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동조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다 더 분명하고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의사 아닌 병원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힙니다. 병원 가동률 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인 무급휴가로 내몰지 말고 노사합의하에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조정으로 비상사태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병동폐쇄를 할 경우 병원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악화와 이후 대책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노사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병원장이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우리는 집단진료거부 사태 장기화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학교 총장과 재단이사장 면담을 통해 해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제와 방식 모두 개혁적이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제도 2,000명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 공공의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의료개혁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의대교수들을 만나면서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를 포함해 의대생, 대학 총장, 의협 등 의료계 대표들을 모아 의당정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와 병원노동자 대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의사와 정부 여당만 참여하는 대화체가 아닌 환자와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야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동경희대학교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건국대학교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고대의료원지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 서울성모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지부,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은평성모병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중앙대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건국대학교병원노동조합, 서울의료원노동조합